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2건 고발

금품 제공 · 선거운동 지시 · 식사 제공 혐의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검찰 고발했다.

먼저 장수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자원봉사자인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C씨 등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C씨 등 4명에게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10만원씩 총 4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SNS를 이용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5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됐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역시 지난 3월 16일 전주시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D씨와 지인인 E씨는 상호 공모해 전주시 평화동 소재 ○○회관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예비후보자 D씨는 자신과 같은 ○○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F씨와 도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G씨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지난 2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취재반

전주시, 나무심기 행사 개최

제71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푸른 전주를 만들기 위한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25일 전주소각자원센터 일원에서 조봉업 전주부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사)푸른전주운동본부 관계자, 완산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코끼리유치원 원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전주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시민들은 이날 산수유와 이팝나무 등 계절별 개화 수종의 교목류와 관목류인 남천 등 총 3종의 나무 970여그루를 저마다의 꿈과 소원을 담아 식재했다.

특히 시는 이날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봄의 전령인 괜지와 비올라, 크리산세멈 등 봄꽃 3000여 본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해 한주의 고사목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키우는 일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한다"며 "생태도시 전주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민중의 소리를 들어달라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 전북도연맹 등이 참여한 '민중총궐기 전북대회'가 전주 세이브 존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시, 중앙 · 노송 · 풍남동 활성화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전주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완산구 중앙·노송·풍남동 일원(약 1.37㎢)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전주시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사업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주의 중심시가지로서의 상징성과 공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원도심 지역에 대해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의를 전제로 한 △공공기관 거점기구 거점강화 사업 △감영지구 거점강화 사업 △영화의 거리 확산사업 등 연계강화 사업 △주민역량 강화 등 지속가능성 확보사업 등이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의 도로포장과 경관조명 및 간판 설치와 같은 물리적인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업시행 주체의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참여주체들이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향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주민설명회에 이어 주민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시민제안사업 발굴,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최종 작성, 국토교통부의 계획승인 및 고시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경찰 폭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10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에 정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대리운전으로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뇌사 70대 여성 장기기증 영면

전북대병원서 간장 · 신장 · 각막 등

불의의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으로 수십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25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따르면 뇌사판정을 받은 조모(73)씨가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 인체조직을 기증했다.

불의의 사고로 지난 12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조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0일 최종 뇌사판정을 받았다.

조씨의 남편과 2남2녀의 자녀들은 평소 장기기증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져왔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온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조씨가 기증한 간과 신장(2개) 각막(2개)은 5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됐고, 인체조직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특히 인체조직기증은 뼈와 피부, 연골,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의 조직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한 사람이 최고 100명까지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세의 고령자가 장기기증을 통해 이처럼 수십명을 살린 예는 극히 드문 경우로 이번 조씨의 사례는 고령자의 장기기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장기이식센터 유희철(간담췌이식외과 교수) 센터장은 "고령자들은 장기기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장기와 조직이 건강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증이 가능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준 고인과 유족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로 2000만원 이내

전주시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2000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된 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 주택관리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2년이며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월 현재까지 총 20가구에 77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633가구에 27억49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63- 222-1000) 또는 시청 주택행정팀(063-281-244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고수익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채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지인 B(32·여)씨에게 "친구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데 투자하면 주가조작을 고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총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40·여)에게 속여 54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C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900여만원을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